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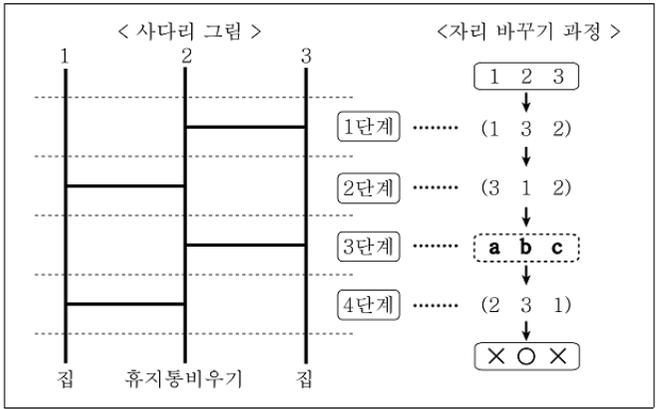
성명  수험번호           1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자리 바꾸기 과정>의 a, b, c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① 1, 2, 3      ② 1, 3, 2      ③ 2, 3, 1
- ④ 3, 1, 2      ⑤ 3, 2, 1

2. (물음) 이 뉴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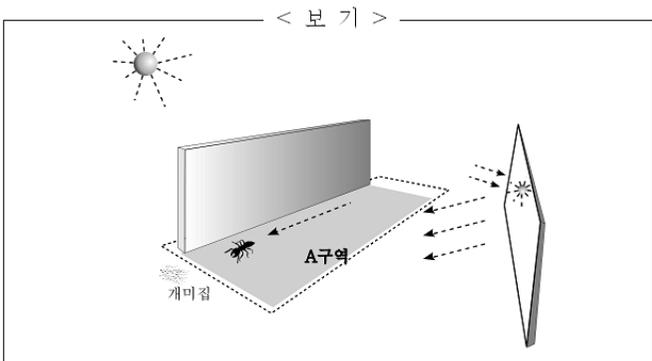
- ①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
- ② 탄산음료가 청소년들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 ③ 탄산음료의 소화 효과에 대한 잘못된 통념
- ④ 탄산음료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
- ⑤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선호 현상

3. (물음) 강사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쓴맛이 억제되면서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 ② 단맛이 약해지면서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 ③ 신맛이 사라지면서 단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 ④ 신맛이 강해지면서 단맛이 강하게 느껴진다.
- ⑤ 새콤달콤한 맛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학생이 <보기>의 A구역에 그렸을 개미의 이동 경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5. (물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학생은 선생님의 답변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 ② 학생은 관찰 경험을 말하며 선생님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③ 선생님은 상반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해 가며 학생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선생님은 개인적인 일화를 소개해 가며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다.
- ⑤ 선생님은 설명한 내용을 학생이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소개의 한 특성에 착안하여 '학업의 자세'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착안점과 구상한 내용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재	착안점	구상 내용
①	등산	정상을 향해 올라감	목표를 향해 꾸준히 공부해야 함
②	항해	풍파를 헤쳐 나감	학업의 과정에서 만나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함
③	건축	기초 공사가 중요함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 실력을 잘 다져야 함
④	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떠남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게 진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
⑤	축구	전반전 결과를 분석하여 후반에 대비함	한 단계를 끝내고 결과를 점검해 다음 단계에 입해야 함

7. '청소년 놀이 문화'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요를 작성하려고 한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할 것은?

**주제문:** 청소년 놀이 문화를 개선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도모해야 한다.

**서론:** 청소년 놀이 문화의 현황

**본론:** 1. ㉠

가. 사회성을 향상시킴  
나. 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줌

2. 청소년 놀이 문화의 문제점  
가. 개인 중심적이고 폐쇄적임  
나. 오락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3. 청소년 놀이 문화의 개선 방안  
가. 공동체 놀이 문화의 개발과 보급  
나. ㉡

**결론:** 청소년 놀이 문화의 개선을 통한 건강한 삶 도모

- ① ㉠: 청소년 놀이 문화의 유래  
㉡: 가족 놀이 문화의 개발과 보급
- ② ㉠: 청소년 놀이 문화의 유래  
㉡: 언론을 통한 건전한 놀이 문화의 보급
- ③ ㉠: 청소년 놀이 문화의 의미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 ④ ㉠: 청소년 놀이 문화의 의미  
㉡: 놀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 ⑤ ㉠: 청소년 놀이 문화의 의미  
㉡: 놀이를 통한 자기 계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8. 다음은 '문자메시지 사용 실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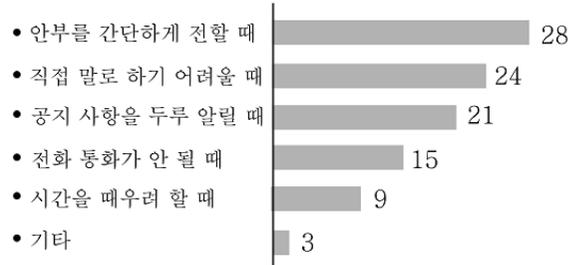
« 자료 1 » 음성 통화 대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평균 하루 네 건의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신문

« 자료 2 » 문자메시지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즉흥적이며 단편적인 소통의 양단 늘어난 측면도 있다. - 인터뷰 내용

« 자료 3 » 문자메시지를 쓸 때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는 재미있고 참신한 표현은 새로운 언어 표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인터뷰 내용

« 자료 4 »

직장인들은 문자메시지를 어떤 때 이용하나? (단위 : %)



활용 자료	활용 계획
① 1	일상생활 속에서 문자메시지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② 2	깊이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③ 1 + 4	다양한 쓰임을 근거로 들어 문자메시지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④ 2 + 3	문자메시지가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⑤ 3 + 4	문자메시지 사용 증가 추세가 공동체 의식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9. 지정된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는 밀가루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  
 >> (예시) 밀치 국물 맛이 구수한 칼국수, 애호박을 썰어 넣고 끓인 수제비의 맛을 잊을 수 없다. 찜고추를 다져 넣은 밀가루 부침개의 맛은 정말 일품이다.
- ②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시다.  
 >> (묘사) 아담한 키에 오뎅 솟은 콧날, 살짝 처져 한없이 선 해 보이는 눈매에 도톰한 입술, 한 마디로 호남이시다. 언제나 호트러짐 없이 단정한 옷차림도 아버지의 매력이다.
- ③ 구전되어 오던 옛이야기들을 설화라 한다.  
 >> (분류) 초인적 인물이 등장하는 신화, 지역이나 사물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인 전설, 향간에 떠도는 깨티있는 이야기인 민담은 모두 구전되어 왔는데 이를 묶어 설화라고 한다.
- ④ 그 친구는 부지런한 학생으로 소문나 있다.  
 >> (과정) 그는 아침 일찍 등교하여 귀가할 때까지 자리에서 거의 떠나지 않고 공부를 한다. 학급 청소나 그 밖의 묵은일을 앞장서서 하는 데서 그의 부지런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 ⑤ 단체 경기는 구성원들 간의 단결에 도움을 준다.  
 >> (유추) 단체 경기는 춤으로 치면, 개인의 능력보다 전체의 조화와 협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군무(群舞)와 같다.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단결심이 결코 함양된다.

10. 다음과 같이 '편의점의 경쟁력'에 관한 글의 초고를 고쳐 썼을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편의점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동네 슈퍼마켓이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24시간 편의점은 동네마다 들어서 있다. ㉠

우선 24시간 영업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귀가 시간이 <sup>㉡ 늦은</sup> ~~다들~~ 사람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sup>㉢</sup> ~~알맞은~~ 공간이라는 점도 편의점의 경쟁력이다. 편의점의 점원은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크게 <sup>㉣ 오해</sup> ~~관여~~ 관여하지 않는다. <sup>㉤</sup> ~~크라프트~~ 그런 태도가 손님을 <sup>㉥</sup> ~~살아남게~~ <sup>살아남게</sup> 될 것이다.

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의 밑줄 친 낱말의 합성 과정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보 기 >

낱말은 합성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형태나 본래의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 예 ]

- ㄱ. 농부들이 논밭(논 + 밭)에서 열심히 일한다.
- 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오빠 + 누이) 이야기를 읽었다.
- ㄷ. 교실 안팎(안 + 밖)을 가리지 않고 깨끗이 청소했다.
- ㄹ. 내 동생은 공부는 안 하고 밤낮(밤 + 낮) 놀기만 한다.
- ㅁ. 어머니께서 반길고리(반느길 + 고리)에 바늘을 넣으셨다.

	형태	의미
①	ㄱ	바뀔
②	ㄴ	바뀌지 않음
③	ㄷ	바뀌지 않음
④	ㄹ	바뀌지 않음
⑤	ㅁ	바뀔

12. <보기>를 참조하여 '서술어의 자릿수'를 판단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장 속에서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

그녀는 <u>예쁘다</u> . (주어) (서술어)	→ 한 자리 서술어
새가 <u>빨리</u> <u>날아간다</u> . (주어)(부사어)(서술어)	→ 한 자리 서술어
그는 <u>연극을</u> <u>보았다</u> . (주어)(목적어)(서술어)	→ 두 자리 서술어
<u>물이</u> <u>얼음이</u> <u>되었다</u> . (주어)(보어)(서술어)	→ 두 자리 서술어
<u>철수는</u> <u>부모님께</u> <u>선물을</u> <u>드렸다</u> . (주어)(필수적 부사어)(목적어)(서술어)	→ 세 자리 서술어

- ①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 한 자리 서술어
- ② 그 소년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 두 자리 서술어
- ③ 내 동생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 두 자리 서술어
- ④ 영국의 날씨는 한국과 다르다. → 세 자리 서술어
- ⑤ 그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 세 자리 서술어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국인의 행동을 규정지었던 『소학』이나 『내훈』에서는 방에 들기 전에 반드시 건기침을 하라 했고, 문밖에 신 두 켤레가 있는데 말소리가 없으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본래 정착 농경민이었던 한국인은 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할 줄 안다. 농경사회에서는 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 간에 별다른 말이 없어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정착보다는 이동이, 안정보다는 전쟁이 많았던 유럽에서는 그러한 생활 환경 때문에 정확한 의사 교환이 중시되었다. 이처럼 변화가 심하고 위급한 상황이 잦은 사회에서는 통찰에 의한 의사소통이 발달하기 어려웠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서구식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통찰의 언어는 때때로 실수나 오해를 빚기도 한다. 그러나 통찰의 언어는 상호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 통찰에 의한 의사소통 문화를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우중충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다림질을 하고 있다. 열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건네 온다.

“아가, 할미가 업어줄까.”

이 말은 할미가 젖을 빠는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빨래를 빨리 거뒀더라는 분부를 내린 것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통찰로 알아듣고 빨래를 거뒀다.

이 때 텃밭에 가서 남새 뜯어 죽거리 마련하라. 저녁밥 지으라. 애들 돌보라. 일손이 바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담배 피우고 있는 방 앞에서 강아지 배매기를 차 깨갱거리게 하거나 마루에서 노는 닭들에게 양칼스레 욕을 퍼붓는다. 시어머니가 ‘옹거리’ 통찰로 그 뜻을 알아차리고 바구니를 들고 남새밭에 가면 좋으려만, 반대로 ‘그렇지 않아도 좀 쉬었다가 텃밭에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 배매기를 차다니……. 어디 가나 보라.’ 하고 버티고 있으면 며느리는 업힌 아이를 향하여,

“네 어미는 무슨 팔자로 손이 세 개 달려도 모자라냐.”

라고 혼잣말을 한다.

이 같은 통찰에 의한 대화를, 통찰이 중시되지 않는 서구식 대화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직설적인 대화가 될 것이다.

“어머니, 제가 아이 업고 밥 짓기가 바쁘니 저를 돕는 뜻에서 남새밭에 가서 죽거리 좀 뜯어다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응, 그러마. 담배 한 대 피우고 나서 나가려고 한다. 약 5분만 기다려 다오.”

“좋아요. 5분 후에는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길 바라요. 꼭요.”

“알았다. 그렇게 하마.”

한국인은 눈이나 귀가 입보다 말을 많이 한다. 가정이라는 작은 집단에서부터 나라라는 큰 집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은 통찰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문화적 관습 아래 같은 상황을 공유해 왔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체되지 않으면 통찰의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13 (가)와 (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개념을 소개한 내용이고, (나)는 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② (가)는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나)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는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소개된 상반된 주장들을 결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의 내용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의 언어’의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 기 > —

- ㄱ. 음성언어를 배제한 채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 ㄴ. 말의 표면적인 의미 자체가 중시되지는 않는다.
- ㄷ. 문화적 관습을 공유해 온 언중 사이에서 통용된다.
- ㄹ. 정확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5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고백하러 갔다가 맥없이 돌아온 동생에게 다가가 말없이 보듬어 준다.
- ② 가게부를 펴놓고 한숨을 쉬는 아내를 본 남편이 아이들에게 “이번 달에는 외식을 줄이자.”라고 말한다.
- ③ 부실한 업무 보고를 받은 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나가 버리는 것을 보고 사원들이 분발하여 열심히 일을 한다.
- ④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삼촌에게 “간접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높대요.”라고 말하자 삼촌이 담배를 끈다.
- ⑤ 팔을 다치신 선생님께서 “누가 이 책 좀 교무실로 갖다줄래?”라고 말씀하시자 반장이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 책을 들고 나선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공장제 자본주의의 토양에서 꽃을 피운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에는 '규모의 경제'가 그에 맞는 경제 형태였다.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 경비가 절약되고 이익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극단적으로 확장되면서 규모의 비경제성이 나타났다. 일관된 작업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부 공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로 공장 전체의 생산 공정이 멎는 경우가 생겼다. 또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분업화와 전문화가 ㉠ 지나치게 진행되었고, 인간들이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되면서 인간소의 현상이 심각해지는 ㉡ 폐해가 발생했다.

한편 '규모의 경제'는 소득을 높여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상품 구매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발현하려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생산 시설이나 원자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시장에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 경제 형태는 공동의 생산라인과 재료를 활용하면서도 제품의 다양화를 꾀하는 형태이므로 이를 일컬어 '범위의 경제'라고 한다.

최근에는 서비스 산업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병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자기 병원에서 가능한 분야 외의 치료가 필요할 때,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병원을 연결해 주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병원들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각 병원들 간에 부족한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정보 체계는 병원들끼리 제휴하여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정보를 중심으로 각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경제 형태를 '연결의 경제'라고 한다.

'연결의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애로(K. Arrow)의 말처럼 '돈 주고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신뢰라는 가치'는 정보 네트워크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결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를 수치화한 것이 NQ(network quotient), 즉 **공존지수**이다. 이제는 누구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공존지수를 높여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 시너지(synergy) 효과 : 상승 작용으로 얻게 되는 효과. 즉, '1+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경우를 가리킴.

16.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 상황에 따른 경제 형태의 변모
- ② 현대 서비스 산업계의 발전 전망
- ③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문제점
- ④ 자본주의적 소비 형태의 특징
- ⑤ 정보 네트워크의 활용 효과

17.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이동통신회사는 극장 체인, 놀이공원, 패스트푸드 전문점 등과 손잡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카드를 만들었다. 그 결과 해당 이동통신회사뿐만 아니라 제휴한 업체들의 매출 실적까지 좋아졌다.

- ①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판매 전략을 사용한 경우이다.
- ② '연결의 경제'가 가진 장점을 보여 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 ③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 준다.
- ④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접목한 경우이다.
- ⑤ '규모의 경제'가 '연결의 경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18. ㉠과 ㉡을 인과적으로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런 상황이 바로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딱 들어맞는 경우로군.
- ②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교훈을 보여 주는 사례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 ③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 ④ 초기 자본주의 시대 사람들의 희망은 **화중지병(畫中之餅)**으로 끝난 거로군.
- ⑤ 일어날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고 만 경우야.

19. 위 글에 제시된 **공존지수**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정보기술 체계에 대한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 ② 도구를 이용해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 ③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 ④ 상대방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 ⑤ 신뢰를 기반으로 구성원과 관계를 맺어 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을 뜨락에  
씨앗을 받으려니  
두 손이 송구하다

모진 비바람에 부대끼며  
머언 세월을 살아오신  
반백(半百)의 어머니, 가을 초목이여

나는  
바쁘게 바쁘게  
거리를 헤매고도

아무  
얻은 것 없이  
꺼렇게 때만 물어 돌아왔는데

저리  
알차고 여문 ㉠황금빛 생명(生命)을  
당신은 마련하셨네

가을 뜨락에  
끓음이 역사(役事)한 씨앗을 받으려니  
도무지  
두 손이 열치었다.

- 허영자, 「씨앗을 받으며」 -

(나)

위험한 곳에는 아예 가지 말고  
의심받을 짓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대로 집에만 있으면  
양지바른 톳마루의 고양이처럼  
나는 언제나 귀여운 자식이었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이 힘들 것 무엇이랴 싶었지만  
그렇게 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수양이 부족한 탓일까  
태풍이 부는 날은  
집안에 들어앉아  
매 문은 책을 골라내고  
옛날 일기장을 불태우고  
아무 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  
자꾸 찢어버린다.  
이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짓을 못하게 되어도  
누군가 나를 기억할까  
어쩌면 그러기 전에 낫선 전화가

울려 울지도 모른다.  
지진이 일어나는 날은  
집에만 있는 것도 위험하고  
아무 짓을 안 해도 의심 받는다.  
조용히 사는 죄악을 피해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평온하게 살지 마라  
무슨 짓인가 해라.  
아무리 부끄러운 흔적이라도  
무엇인가 남겨라.

- 김광규, 「나의 자식들에게」 -

(다)

겨울 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출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태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전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

20.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미래의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초점이 되는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가) ~ (다)는 자아의 심리적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
- ⑤ (가) ~ (다)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를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 보 기 >

(가)는 주로 '대조'의 기법을 사용했다. 시에서 대조의 기법을 활용하면 작품의 주제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가을 초목	화자
-------	----

- |                |                   |
|----------------|-------------------|
| ① 알찬 결실을 거둔    | ↔ 삶에서 거둔 것이 거의 없음 |
| ② 모진 풍파를 다 겪어옴 | ↔ 세상의 풍파를 모르고 지냄  |
| ③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  | ↔ 세상의 때를 묻히고 살    |
| ④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옴 | ↔ 무기력하게 살아옴       |
| ⑤ 여유 있게 살아옴    | ↔ 매우 바쁘게 살아옴      |

22. (나)와 다음의 우화를 연관 지어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I. 어렵게 알밤 창고를 찾은 다람쥐 <갸>과 <을>은 알밤을 마음껏 먹었다. 알밤은 그들에게 하나의 삶의 목표이다.

II. 얼마 후 알밤이 바닥났지만 <을>은 다른 알밤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 버렸다.

III. <을>이 목표를 다시 세우기는 커녕 바깥세상을 두려워할 때, <갸>은 다른 알밤을 찾기 위해 낯선 길로 나선다.

IV. 새로운 창고를 발견한 <갸>은 알밤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또다시 닥쳐올 미래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한다.

- ① '돌아가신 아버지'라면 낯선 길로 나서는 <갸>의 행동을 적절하게 바라볼 것이다.
- ② '양지바른 툇마루의 고양이'는 집안에 갇혀 바깥세상을 모르게 된다는 점에서 <을>과 비슷하다.
- ③ 과거의 '나'는 다른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했다는 점에서 <을>과 유사하다.
- ④ 현재의 '나'는 하나의 목표에만 집착하는 융통성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을>과 닮았다.
- ⑤ 현재의 '나'는 자식들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서서 <갸>처럼 무슨 일이라도 실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23. ㉠과 ㉡의 의미와 표현을 <보기>와 같이 이해할 때, 두 시구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의미	표현
씨앗	→ ㉠ 황금빛 생명
눈[雪]	→ ㉡ 순수의 얼음꽃

- ① 유사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 강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 ② 구체적 대상이 지닌 속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③ 역동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내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와 동일시하였다.
- ⑤ 대상의 특징을 역설의 방법으로 강조하였다.

24. (다)의 1~5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연: 화자는 겨울 나무와 바람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② 제2연: 화자는 '1연'과 연관 지어, 인간은 외롭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③ 제3연: 화자는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을 은총이나 섭리로 여기고 있다.
- ④ 제4연: 화자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 결심하고 있다.
- ⑤ 제5연: 화자는 새해 아침을 맞아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동경하고 있다.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밤이 이슬해져 취기가 도도해진 아버지가 명태 한 코\*를 들고 와서 마중하는 며느리에게 “됐다.” 하며 건네주는 걸 ㉠ 본 적이 있다.

그날, “아버님, 저녁 진짚상 차릴까요?” 며느리가 묻자 아버지는 “먹었다.” 하시며 두루마기를 벗어서 며느리에게 건네주고 사랑으로 들어가셨다. 며느리는 두루마기 자락을 추녀 밑에 걸어 놓은 등불에 ㉡ 비춰 보더니 즉시 우물로 가지고 가서 빨았다. 아버지는 취한 걸음으로 이강들을 건너서, 은고개를 넘어서, 하골 산모랭이를 돌아서 두루마기 앞섶을 휘날리며 오셨을 것이다. 삶의 어느 경지에 취해서 맘껏 활개 치는 아버지의 손에 들려 온 명태 두 마리가 얼마나 요동을 쳤으면 두루마기 자락을 다 더럽혔을까.

아침에 아버지가 “아가, 두루마기 내오너라.” 했을 때, 며느리는 그 지엄한 분부에 차질 없이 대령할 수 있도록 닦음질을 해서 햇대에 걸어 둔 두루마기를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내다 드렸다. 그 두루마기 자락에 온통 명태 비린내를 칠해 오신 것이다. 그리고 ㉢ 그 명태를 며느리에게 건네고, 며느리는 공손히 받아서 부엌 기둥에 걸었다. 한 집안 대주(大主)의 권위가 나를 감동시켰다.

젊은 날의 어느 늦가을, 가을걷이를 끝내고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막차에서 내린 나는 버스 종점 건너편에 있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 섰다. 등피를 잘 닦은 남뿔뿔 아래 놓인 생선 상자에 ㉔ 누워 있는 명태들이 왜 그리 정답던지, 마치 우리 사랑채에 모여 놀다가 계사를 보고 가려고 가지런히 누워 곤하게 등걸잠이 든 마실꾼들 같았다. 그 명태를 한 코 샀다.

아버지가 두루마기 자락에 명태 비린내를 묻혀 가지고 왔다고 젊은 자식 놈도 그러면 불경(不敬)이다. 옷에 비린내를 묻히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해서 명태 한 코를 들고 발길 십 리를 ㉕ 걸어 집에 오니가 팔이 아팠다. 연단하신 아버지가 취중에 두루마기 자락에 비린내를 묻히지 않고 명태 한 코를 들고 십 리 길을 걸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결코 아버지는 당신의 출입 위상을 위해서 정성을 다한 며느리의 수고를 소홀히 여기신 건 아니었다.

(중략)

명태는 무욕으로 일관한 제 생의 담백한 육질을 신선하게 보전해서 사람들에게 보시\*했다. 명태는 제 속을 비워 창난것과 명란젓을 담게 하고 몸뚱이만 바닷가의 덕장에서 바닷바람에 말려 북어가 되고, 대관령 너머 눈벌판의 덕장에서 더덕북어가 되었는데, 알다시피 계사날 상 위에 놓이거나, 고사상 먹시루 위에 실타래를 감고 누워 사람들의 국중재배(鞠躬再拜)를 받는 귀물로 받들어졌다.

명태국을 생각하면 언뜻 늦가을 텃밭의 황토 흙에 하반신을 묻고 상반신을 햇살에 파랑게 드러낸 채 서 있던 청정한 조선무가 떠오른다. 그 순박무구하고 건강하기가 파년한 산골 큰애기 같은 조선무가 없으면 명태의 담백한 맛을 살려 내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산골 동네 텃밭에서 그 청정한 무가 가을 내내 담백한 맛의 진수를 보여 주려고 명태를 기다렸다. 순박한 조선무와 담백한 명태의 만남. 그야말로 산해가 진미로 만나는 것이다.

문득 ㉖ 아버지의 호기가 그림다. 아낀 햇살 가득 차오르던 산골 초가집 부엌 기둥에 걸려 있던 순박한 명태 한 코가 집안 대주의 권위로 보이던 그 시절이 그림다.

- 독성균, 「명태에 관한 추억」 -

(나)

[ I ]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덕을 어찌 다 감사오리.

[ II ] ㉗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뒤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III ]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구나.  
사람이 되어 나서 옳지 곧 못하면  
마소를 갓 고갈 씩워 밥 먹이나 다르랴.

[ IV ] 팔뚝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라.  
나갈 데 계시거든 막대 들고 좃으리라.  
향음주(鄉飲酒)\* 다 파한 후에 되셔 가려 하노라.

[ V ]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갖지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지 마라.  
한번 곧 매 들은 후면 다시 씻기 어려우리.

- 정철, 「훈민가」 -

\* 한 코: 일부 지방에서는 명태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한 코'라고 말함.  
\* 보시: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풀음.  
\* 향음주: 마을에서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

25 (가)와 (나)의 내용을 관련지어 이해할 때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의 내용 확인하기	→	의미 확장하기	→	(나)에 연결하기
① 취중에도 아버지가 명태를 사 들고 오심	→	어버이의 수고에 감동함	→	[ I ]
② 아버지께서 언제든 두루마기를 입으실 수 있도록 잘 다려 놓음	→	어른을 지성으로 공경함	→	[ IV ]
③ 들쓰시가 옷에 명태 비린내를 묻히지 않으려 조심함	→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으려 함	→	[ V ]
④ 명태가 제 속을 비워 것같이 되고 몸뚱이를 말려 북어가 됨	→	뜻 있는 삶의 자세를 보임	→	[ III ]
⑤ 집안의 대주(大主)이시던 아버지를 생각함	→	어버이를 그리워 함	→	[ II ]

26 (가)의 ㉘과 (나)의 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㉘	㉙
①	존경의 대상	연민의 대상
②	슬픔을 주는 존재	기쁨을 주는 존재
③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	미래를 지향하는 존재
④	체형 속의 구체적 인물	관념 속의 일반화된 존재
⑤	가르침을 전해 주는 인물	회한에 젖어 들게 하는 존재

27 위 글의 흐름으로 보아, ㉚~㉜ 중 '당당히'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는? [1점]

- ① ㉚      ② ㉛      ③ ㉜      ④ ㉝      ⑤ ㉞

28 (나)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늘'은 부모님의 사랑이 지닌 크기를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② '평생'은 다시 틀어질 수 없는 과거를 의미하는 말이다.  
③ '마소'는 윤리 의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④ '두 손'은 부모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말이다.  
⑤ '옷'이나 '밥'은 남의 소유물을 뜻하는 말이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바코드가 널리 사용되더니, 최근에는 RFID가 등장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RFID란 무선주파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인식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카드로부터 정보가 단말기로 전달되어 신분이 확인되고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RFID가 적용된 예이다. 이 외에도 RFID는 교통 요금의 징수, 상품의 채고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 RFID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와 정보를 인식하는 단말기,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등의 장치에 의해 실현된다. 태그는 단말기에서 전파의 형태로 무선 신호를 보내오면 그에 반응해 태그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단말기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기능은 태그에 있는 전자칩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전자칩은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전자회로이다. 단말기는 태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해독해서 컴퓨터로 보낸다. 그러면 컴퓨터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아내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교통 요금 지불, 출입문 개폐 등의 작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다) RFID의 실용적 가치가 높아진 것은 전자칩의 소형화와 관련이 있다. 소형화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 외에도 배터리 없는 전자칩의 개발로 가능해졌다. 단일 전류를 공급해 주는 배터리를 전자칩에 별도로 장착해야 했다면 소형화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현재의 전자칩은 단말기가 보내주는 전파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류단으로도 작동된다. 이는 코일 주변에 자석을 갖다 대면 자기장에 의하여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응용한 것이다. 단말기에서 보내온 자기장에 의하여 태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코일에서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가 전자칩을 작동시킨다.

(라) RFID는 바코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바코드는 한정된 정보 처리만이 가능하고 환경 변화에 의해 훼손되기 쉬우며 한 번 정보를 기록하면 수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RFID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정보의 수정이 자유롭다. 그리고 수십cm 이내의 거리에서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에 비해, RFID는 최대 100m 거리에서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다. RFID로는 여러 개의 태그가 동시에 한 단말기에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는 바코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마) 현재 RFID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는 보안성과 전자칩의 가격에 있다. ㉠ RFID는 바코드에 비해 위조의 가능성이 크고 태그와 단말기의 통신 과정에서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는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전자칩 자체에 넣거나, 전자칩의 복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해결을 꾀하고 있다. 전자칩의 가격 문제도 반도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수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 초소형 전자칩이 과거보다 점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되고 있어 기대를 높이고 있다. RFID가 일상화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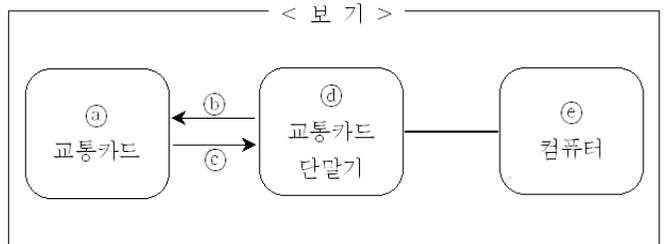
29.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RFID를 소개하고 활용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RFID를 구성하는 여러 장치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 RFID 전자칩의 소형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RFID의 장점을 바코드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 RFID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3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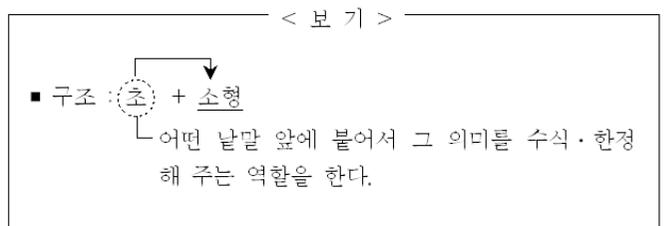
- ① 전자칩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의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 ② 단말기에서 동시에 여러 정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단말기와 전자칩의 통신 거리가 비교적 멀기 때문에
- ④ 환경 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 ⑤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31. (나)와 (다)를 바탕으로 <보기>의 ㉠ ~ ㉢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태그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코일 등으로 구성된다.
- ② ㉡는 카드의 전자칩 작동에 필요한 전류를 유도하는 전파의 이동 경로이다.
- ③ ㉢는 카드의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이동 경로이다.
- ④ ㉣는 카드의 정보를 분류한 후 그 정보를 저장해 보관한다.
- ⑤ ㉤는 해당 자료를 찾아 교통 요금이 징수되도록 처리한다.

32.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 친 말들 중에서 ㉠의 '초(超)'와 역할이 다른 것은?



- ① 대성공(大成功)
- ② 동식물(動植物)
- ③ 고소득(高所得)
- ④ 맹훈련(猛訓練)
- ⑤ 급경사(急傾斜)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늦가를 저녁이었다. 잊혀 가던 잠바 소년이 문득 다시 서대문 정류소에 나타났다.

“저 녀석 저기 있군.”

누군가가 유리창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리에 오른쪽 창가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무심결에 일제히들 창문 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 녀석이 다시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녀석은 잠바 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듯 한가하게 이쪽 창문을 올려다보고 서 있었다. 눈가엔 그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디엔가 아쉬움이 깃든 눈초리였다.

녀석의 옆구리엔 신문 동치가 들려 있지 않았다. 신문이 없으니까 녀석은 차를 비집고 올라올 일도 없었다. 역양을 한껏 아껴 가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대사를 외어 대던 옛날의 녀석은 볼 수가 없었다. 우리는 얼마간 시들해지기 시작한 중급증이 다시 살아났다.

“녀석에게 이제 다른 밥벌이가 생긴 건가.”

“신문도 팔지 않으면서 웬일로 여긴 다시 서성거리고 있는 건가.”

하지만 녀석에게선 물론 아무것도 사정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 날 저녁 이후로도 녀석은 가끔 서대문에 나타나서 두 손을 잠바 주머니에 찢러 넣고 서서 우두커니 지나가는 버스들을 쳐다보고 있는 적이 있었고, 때로는 담벼락 밑 군밤 장수의 연탄불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잠바깃을 세운 채 언 손을 짹짹 비벼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한 번도 신문 동치를 지닌 일이 없었고, 따라서 차에 올라오는 일도 없었다. 주머니에 손을 찢러 넣고 서 있거나, 군밤 장수의 연탄불에 손을 녹이며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지나가는 차창에서 항상 그 아쉬운 듯한 눈길에 떠나지 않고 있는 녀석을 볼 수 있을 뿐, 무엇 때문에 그가 가끔 신문도 팔지 않는 그 서대문 근처를 할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이유를 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갈수록 중급증만 더해 갔다. 어느 날 저녁 마침내 다시 한 사내가(다시 말하지만 그 사내가 굳이 [나], 누구였다고 말하기 싫은 것은 이 이야기 중의 모든 경험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싶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것으로 무슨 특별한 뜻을 담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년을 알고 있을,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기에 말이다.) 광화문에서부터 서대문까지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 번 소년을 만났다. 이번에는 사내 혼자 소년을 돌려 만난 것이 아니라 녀석과 사내가 함께 만난 것이다. 소년은 물론 사내가 좀 이상스러운 눈치였다. 별 걸 다 묻는다는 식이었다.

“그런 건 왜 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여전히 그 눈가의 웃음기만은 잃지 않고 있었다.

“다시 신문을 팔아야지요. 하지만…….”

조금은 어른스런 말투가 찻속에서 신문 이틈을 위위 댈 때하곤 판이하게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뜻밖인 것

은 예기치 않은 녀석의 불평이었다.

“민국일보가 없어서 버렸기 때문이에요. 민국일보가 빠지니까 소리가 맞지 않아요. 동아일보요, 서울신문이요, 중앙일보요……. 민국일보가 없으니까 차꾸만 짝이 어긋나 버리거든요.”

하고 보니 녀석이 보이지 않던 시작한 것은 몇 십 년간 발간 실적을 가진 그 민국일보가 뚜렷한 명분도 없이 어둠어둠 차진 폐간 형식으로 신문 발간을 중단해 버린 다음부터였던 것 같았다. 이상스런 얘기지만, 녀석은 그 민국일보가 나오지 않으니까 신문을 팔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일테면 녀석에게 민국일보가 빠져 버렸기 때문에 그의 대사 전체 질서의 골격이 무너져 나가 버린 셈이 된 것이다. 그리고 녀석은 그 때문에 신문을 팔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는 다시 연습을 시작하고 있노라 했다. 남은 신문들의 순서를 꿰맞춰서 대사의 역양과 호흡을 다시 연습하고 있는 중이었다. 소리가 좀처럼 짝이 맞질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연습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신문을 팔겠노라 했다.

“말하나 마나지요. 신문을 팔아야지요. 한테도 아직 소리가 그 것처럼 신이 나질 않아요. ① 민국일보가 다시 나와 준다면 좋겠지만…….”

녀석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신문팔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누구나 녀석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신문을 팔러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B] 소리 연습이 여태도 다 끝나질 않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아주 연습을 포기하고 만 것이었을까. 가을이 다 지나가도록 그는 여전히 신문을 팔지 않았다. 녀석의 희망처럼 민국일보가 다시 복간호(復刊號)를 내주지도 않았다. 차진해서 폐간호(廢刊號)를 내고 사라진 신문이 다시 살아나 줄 희망은 없었다. ②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다.

- 이청준, 「견방진 신문팔이」 -

33 위 글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녀석'은 버스 정류소 주변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다.
- ② '녀석'은 민국일보의 폐간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 ③ '녀석'은 특유의 역양으로 즐기듯이 신문들의 이틈을 윈다.
- ④ '우리'는 신문팔이 소년이 나타나지 않자 중급해 하고 있다.
- ⑤ '우리'는 '녀석'에게 생계 수단을 마련해 주려고 애쓰고 있다.

34 [A]의 내용으로 보아 [나]를 [우리]로 표현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녀석의 일이 공동의 관심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 ② 녀석에게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 ③ 녀석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 ④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 ⑤ 상황에 대해 일정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35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마그리트, 「자연의 은총」

이 그림은 얼핏 보면 나뭇잎이지만 잎의 끝부분은 새의 형상이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나뭇잎과 새'의 형체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두 사물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놓았다.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중첩을 의미의 중첩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감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 ① 나무의 형상과 새의 형상이 비현실적으로 결합되어 있군. 위 글에서도 신문팔이 소년과 '우리'의 만남을 비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 ② 정말 동화적 상상력이 잘 드러난 그림이야. 위 글에서도 동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신문팔이 소년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어.
- ③ 전혀 다른 두 대상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도미가 있군. 위 글에서도 두 인물의 상반된 성격을 중첩시켜 인간적 교감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두 사물이 그럴 듯하게 하나로 통합되었잖아. 위 글에서도 입장은 다르겠지만 민국일보의 복간을 원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의 소망이 중첩되고 있거든.
- 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연의 은총을 표현하고 있어. 위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문팔이 소년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한 것 같아.

36 [B]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녀석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아직도 신문을 팔러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녀석의 소리 연습이 여태도 끝나질 않았다고 믿었고, 또 일부는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 ① 독자와 등장인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 ② 등장인물의 심리가 단정적으로 드러난다.
- ③ 초점 대상이 되는 인물은 바뀌지 않는다.
- ④ 서술 시점이 작품 밖으로 옮겨 간다.
- ⑤ 등장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바뀐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문(廣文)이란 자는 한 비렁뱅이다. 그는 일찍이 종루(鐘樓)네거리 저자에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그리하여 길거리에 다니는 듯 비렁뱅이 아이들은 모두 광문이를 우두머리로 추대하여, 그들의 보급자리인 구멍집을 지키게 했다.

날씨가 춥고 진눈개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모든 아이들은 서로 이끌고 밥을 빌러 나가고, 다만 한 아이만이 병에 걸려 구멍집을 떠나지 못했다. 이윽고 그 아이의 추위는 점차 더하여 신음하는 소리가 유달리 구슬뼀다.

광문이는 홀로 매우 불쌍히 여기다가 끝내 견디지 못해서 구멍집을 나와서 밥을 빌다가 돌아왔다. 그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 했으나, 그 아이는 벌써 숨결이 지고 말았다.

이윽고 몇 아이들이 구멍집으로 돌려 들어왔다. 그들은 광문이가 그 동무를 죽인 것이라 의심하여 서로 피하여 광문이를 두들겨 구멍집에서 돌아냈다. 광문이는 하는 수 없이 도망하여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개를 놀래 깨웠다. 개 소리에 잠을 깬 그 주인 영감이 밖으로 나와서 광문이를 잡아 묶었다. 광문이는,

“나는 원수들을 피해 온 놈이유. 조금도 도둑질할 뜻은 없어 유. 주인 영감이 기어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밝은 아침 나절에 종루 저자에서 밝혀 드리겠어유.”

하고 하소연을 했다. 그의 말씨는 정말 꾸밈없는 순진 그대로였다.

㉠ 주인 영감은 벌써 마음속으로 광문이가 도적이 아님을 알아채고는, 그 이튿날 새벽에 풀어 주었다.

광문이는 곧 감사를 드리고, 거적매기를 얻어 갖고는 가버렸다. 그 행동을 본 주인 영감은 끝내 피이히 여겨서 들래 그의 뒤를 밟았다. 마침 듯 비렁뱅이가 한 시체를 이끌고 수표교에 이르러서 그 시체를 다리 아래 던지고 가버렸다. 광문이가 다리 속에 숨었다가 그 시체를 거적매기 속에 싸서 남몰래 지고 가서 서문 밖 무덤 사이에 묻고 나서 울면서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

그것을 본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잡고 그 영문을 물었다. 광문이는 그제야 그의 앞서 한 일과 어제 한 일들을 숨김없이 다 밝혔다. ㉡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이의 일을 의롭게 여겨서,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모든 것을 우대하였다. 그리고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어떤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살이를 시켰다.

어느 날 부자가 문밖에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와서 다시금 방에 들어 자물쇠를 살피고 문밖을 나서면서도 그의 얼굴엔 몹시 기쁘지 않은 기색을 띠었다. 그는 이윽고 돌아와서 깜짝 놀라더니, ㉢ 광문이를 눈독 들여 보며 무엇을 말할 듯하다가 얼굴빛이 변한 채 그만 그치고 말았다.

㉣ 광문이는 실로 그러는 이유조차 모르는 채 날마다 잠자코 일만 했을 뿐 감히 하직하고 떠나버리지도 못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났다.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갖고 와서 부자에게 드리며,

“앞서 제가 아저씨께 돈을 꾸러 왔더니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으시기에 제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갖고 왔습니다. 아마 아저씨께서 모르셨겠죠.”

한다. ㉤ 그제야 부자는 광문이에게 크게 부끄럽게 여겨 광문이더러,

“나는 소인이야. 이 일로 부질없이 점잖은 사람의 뜻을 수고롭게 하였네 그려. 내 이제 무슨 뉘대로 자네를 대하겠나.”

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부자는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는 물론

이요, 다른 부자와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이야말로 정의를 지닌 인간이지.”

하고 널리 칭송하였다. 그는 또 그의 모든 종실(宗室)의 손님들과 공경(公卿)의 문하(門下)에 다니는 이들에게 이르는 곳마다 선전하였다. 그리하여 공경의 문하에 다니는 이들과 종실의 손님네들이 모두 이것으로 이야깃거리를 삼아서 밤이면 그들의 배갓머리에서 들려주었다. 그리하여 몇 달 사이에 서울 안의 사대부치고선 광문의 이름을 옛날 가혹한 사람처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중략)

광문이 길에서 싸움하는 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훌훌 벗어젖히고는 함께 싸움에 가담하는 체한다. 그러나 그는 무슨 말을 지껄이는지 머리를 숙여 땅을 그으면서 마치 그들의 옹고 그름을 따지는 듯했다. 그러는 꼴을 본 온 저자 사람들은 모두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러면 싸우던 이도 역시 웃지 않을 수 없어 모두 흠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광문이는 나이가 마흔이 넘었을 때에도 오히려 흉각머리를 땅았다. 남들이 장가들기를 권하면 그는 곧,

“도대체 예쁜 아가씨는 누구든지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나 이는 사내단이 그런 것은 아니요, 저 여인들도 역시 그런 거야. 그러므로 나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들 수 있단 말이야.”

했다. 남들이 혹시 그에게 살림살이를 차려 주려 하면 그는,

“나는 부모도 아니 계시고, 형제 처자마저 없는 인간이니 무엇으로 살림살이를 한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아침나절이면 노래 부르며 저자로 들어갔다 해가 저물면 저 부귀(富貴家)의 문턱 밑에 피로한 몸을 쉬이지 않으우. 그리고, 서울의 호수(戶數)가 팔단에 날마다 그 처소를 옮기는 만큼 내 나이를 아무리 많이 산다 하더라도 골고루 다니진 못할 게 아니우.” 하고 사양했다.

- 박지원, 「광문자전」 -

37. 위 글에 대해 <보기>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때, 설정한 과제의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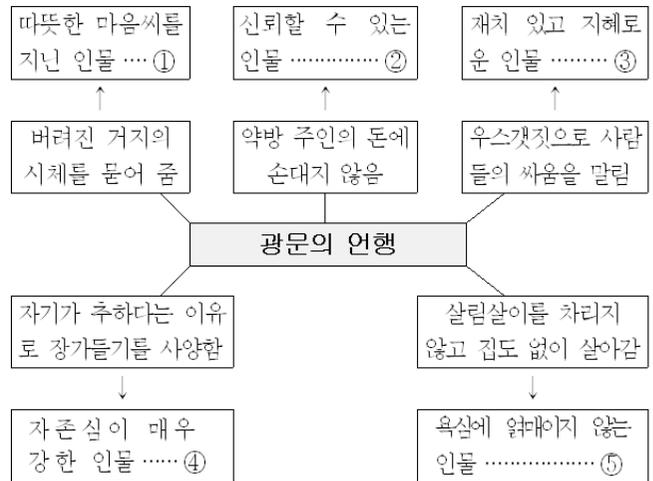
글을 읽으면서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즉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을 '발견적 과제'라 하고, 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는 심층적 질문을 '탐구적 과제'라고 한다. 소설 읽기의 경우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배경은 언제 어디인가' 등 읽으면서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발견적 과제'이고, '왜 그러한가, 이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등 읽고 나서 깊이 생각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탐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 ① 광문이 약방 고용살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② 우두머리인 광문이 왜 직접 구걸하러 나가야 했는가?
- ③ 거지인 광문의 삶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인가?
- ④ 광문을 풀어 준 주인 영감은 왜 돌래 광문의 뒤를 밟았는가?
- ⑤ 거지인 광문이 어떻게 장안의 유명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서 극적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 ② 몇 개의 사건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엮어 나가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을 치밀하게 묘사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39. 위 글을 읽고 광문의 언행을 통해 그의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0. 위 글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의 상황을 방백으로 바꿀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말하는 태도를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군.'
- ② ㉡: '역시 이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의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구나.'
- ③ ㉢: '아니야. 저 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했으니 돈을 훔쳤을 리 없어.'
- ④ ㉣: '주인이 나를 보는 얼굴빛이 심상치 않네. 왜 저러시지?'
- ⑤ ㉤: '그 동안 내가 뻔한 사람을 의심했구나.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어.'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흔히 우리 춤을 손으로 추는 선(線)의 예술이라 한다. 서양 춤은 몸의 선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고 추는데 반해 우리 춤은 옷으로 몸을 가린 채 손만 드러내놓고 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손이 춤을 구성하는 중심축이 되고, 손 이외의 얼굴과 목과 발 등은 손을 보조하며 춤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손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내는 우리 춤의 선은 내내 곡선을 유지한다. 예컨대 승무에서 장삼을 휘저으며 그에 맞추어 발을 내딛는 ㉠ 역동적인 움직임도 곡선이요, 살풀이춤에서 수건의 간드러진 선이 만들어 내는 것도 곡선이다. 해서 지방의 탈춤과 처용무에서도 S자형의 곡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춤을 완성해 낸다.

물론 우리 춤에 등장하는 곡선이 다 같은 곡선은 아니다. 힘 있는 선과 유연한 선, 동적인 선과 정적인 선, 무거운 선과 가벼운 선 등 그 형태가 다양하고, 길이로 볼 때도 긴 곡선이 있는가 하면 짧은 곡선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선들은 춤을 추는 이가 호흡을 깊이 안으로 들이마실 때에는 힘차게 휘도는 선으로 나타나고, ㉡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반복할 때에는 경쾌하고 자갈찬 곡선으로 나타나곤 한다.

호흡의 조절을 통해 다양하게 구현되는 곡선들 사이에는 우리 춤의 빼놓을 수 없는 구성 요소인 '정지'가 숨어 있다. 정지는 곡선의 흐름과 어울리며 우리 춤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정지하기 쉬운 동작에서의 정지는 별 의미가 없지만, ㉢ 정지하기 어려운 동작에서 정지하는 것은 예술적 기교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때의 정지는 말 그대로의 정지라기보다 ㉣ '움직임의 없음'이며, 그런 점에서 동작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음악의 경우 연주가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후에 일어나는 정지 상태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연주 도중의 정지, 곧 침묵의 순간은 소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이때의 소리의 없음도 엄연히 연주의 일부라는 것이다.

우리 춤에서 정지를 ㉤ 동작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춤에 담겨 있는 '마음의 돌입'이 발현된 결과이다. 춤추는 이가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양한 곡선들을 연출하는 과정을 보면 한 순간 움직임을 통해 ㉥ 선을 만들어 내지 않고 멈춰 있는 듯한 장면이 있다. 이런 동작의 정지 상태에서도 멈춤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며, ㉦ 여백의 그 순간에도 상상의 선을 만들어 춤을 이어가는 것을 돌입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 춤이 춤의 진행 과정 내내 곡선을 유지한다는 말은 이처럼 실제적인 곡선뿐만 아니라 마음의 돌입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춤을 가장 우리 춤답게 만들어 주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42 ㉠~㉥ 중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
- ② ㉢ 정지하기 어려운 동작에서 정지하는 것
- ③ ㉣ '움직임의 없음'
- ④ ㉤ 동작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
- ⑤ ㉥ 선을 만들어 내지 않고 멈춰 있는 듯한 장면

43 ㉠와 ㉢의 구체적인 경우를 <보기> 안에서 찾았다고 할 때, 적절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빈 대(臺)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일새마다 달이 지는데

ㄱ [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ㄴ [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ㄷ [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변되는 별빛이라,

ㄹ [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뵈레라.

- 조지훈, 「승무」 중에서 -

44. 위 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우리 춤은 주로 손을 중심으로 하여 선을 만들어 간다.
- ② 우리 춤은 곡선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전개한다.
- ③ 우리 춤은 힘차고 가벼운 동작을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 ④ 우리 춤은 호흡 조절을 통해 여러 가지 선을 연출한다.
- ⑤ 우리 춤을 감상할 때에는 정지 동작도 잘 살펴야 한다.

- |   |   |   |
|---|---|---|
|   | ㉠ | ㉢ |
| ① | ㄱ | ㄴ |
| ② | ㄱ | ㄹ |
| ③ | ㄴ | ㄱ |
| ④ | ㄴ | ㄷ |
| ⑤ | ㄷ | ㄹ |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도인들은 심한 기근으로 굶는 경우에도 암소를 잡아먹지는 않는다. 인도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힌두교에서 암소를 생명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역시 이를 금지하는 종교적 규율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 보여 준다.

(나) 이러한 인간의 정신세계에 주목하여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관념론적 관점이라 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문화 현상은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 활동에 의한 산물이 ㉡ 된다. 인류학자 제임스 프레이저(James Frazer)는 특정 동물에 대한 금기가 그 동물을 숭배하던 전통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관념론적 관점은 문화 현상 속에 담긴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이다.

(다) 이와 달리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문화 현상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정신 활동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특정한 생존 방식이나 노동 방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즉 정신이 사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정신을 만들어 낸다는 견해를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 살는다. 이런 점에서 관념론적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라)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특정 동물의 고기를 금기시하는 현상에 대해 유물론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해리스의 견해에 따르면 인도인들이 암소 고기를 먹는 것은 그들의 생활방식에 맞지 않다. 수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인도에서는 암소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농사에 필요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소가 있어야 ㉣ 한다. 뿐만 아니라 암소는 추수하고 남은 농작물 찌꺼기나 시장터의 쓰레기를 먹어 치우는가 하면 인간에게 유용한 우유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암소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러한 암소의 유용성을 포기하는 것이 ㉤ 된다. 중동 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지 않는 것도 그들의 생활방식 때문이다. 돼지는 퇴사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섬유소가 적은 사료를 먹어야 한다. ㉥ 따라서 먹이를 놓고 인간과 경쟁 관계에 있게 된다. 농사보다는 유목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던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돼지를 기르는 것은 매우 사치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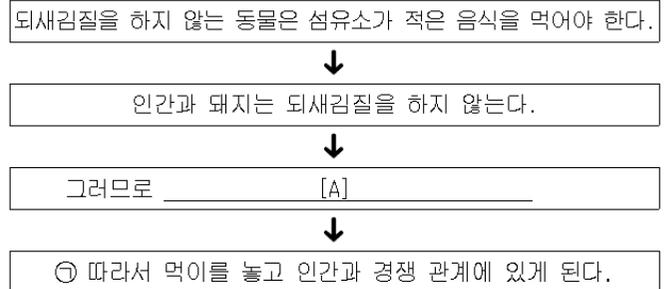
(마)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념론적 관점과 유물론적 관점은 동일한 문화 현상에 대하여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르다. 두 관점은 표면적으로 볼 때 서로 배치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문화 현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44 위 글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 ② (가) — (나) — (다) — (라) — (마)
  - ③ (가) — (나) — (다) — (라) — (마)
  - ④ (가) — (나) — (다) — (라) — (마)
  - ⑤ (가) — (나) — (다) — (라) — (마)

45 위 글을 읽고 나서 <보기>의 내용을 접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관념론적 관점에 따른 접근	<보기>	유물론적 관점에 따른 접근
① 삼철일 동안 출입을 금한 것은 삼(3)과 칠(7)의 결합이 가지는 신성한 때문이었을 거야.	과거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때문에 금줄이라고 부르는 새끼줄을 치고 고추나 한지, 솔가지, 솔 등을 끼워 놓았다. 금줄을 두른 방에는 친척이라도 삼철일(21일) 안에는 들어가지 못 했다. 그 동안 산모는 미역국을 먹으며 방 안에서만 지냈다.	③ 새끼줄을 금줄로 사용한 것은 새끼줄이 튼튼하면서도 일상 생활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거야.
② 산모가 미역국을 먹은 것은 미역에 포함된 성분이 혈액 순환을 도와주었기 때문일 거야.		④ 금줄에 솥을 끼우는 것은 솥이 오염 물질을 정화해 주기 때문일 거야.
		⑤ 외부인의 출입이 잦았을 때 산모나 아기가 쉽게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거야.

46 ㉠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후론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돼지를 먹어야 한다.
- ② 인간은 섬유소를 돼지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다.
- ③ 인간은 돼지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 ④ 인간과 돼지는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 ⑤ 인간과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동일하다.

47. ㉠ ~ ㉤ 중 '~기 때문이다'의 형태로 고쳐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리를 지어 둘러다니는 송사리들의 움직임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처럼 일사불란하다. 피라미들은 개울의 빠른 물살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동작으로 무리 지어 다닌다. 이처럼 물고기들이 무리 짓는 환경은 단물에서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부들은 한 번의 투망 작업으로 수백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무리 지어 다닐까?

두세 마리에서 수백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일제히 헤엄칠 때,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커다란 생물체 같다. 무리 안에서는 일정한 우두머리가 없다. 무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선회할 때에는 측면에 있던 개체들이 무리를 선도한다.

물고기들이 무리를 이룰 때 동원되는 감각 중 중요한 것은 시각과 열줄 감각이다. 물고기의 시력은 0.5 이하로 약한 편이어서 명암 구분만 가능하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은 사람의 2배 정도 된다. 무리 지어 다니는 물고기들은 대개 반짝이는 몸을 가졌는데, 이것이 시각을 자극하여 무리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또 대개의 물고기들은 다른 생물이나 물체, 물의 흐름, 진동, 온도, 깊이 등을 감지하는 열줄이 있다. 물고기의 무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대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하는 이 열줄의 감각 체계 때문이다.

무리 안에서 각 개체들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동료들이 사용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 덕택이다. 개체마다 중앙 부분이 굵고 머리 끝과 꼬리 끝으로 가면서 차츰 가늘어지는 체형을 이용하여 자기 뒤로 물의 소용돌이를 만든다. 물고기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단거리를 이동해 갈 수 있다. 여기에는 바로 유체역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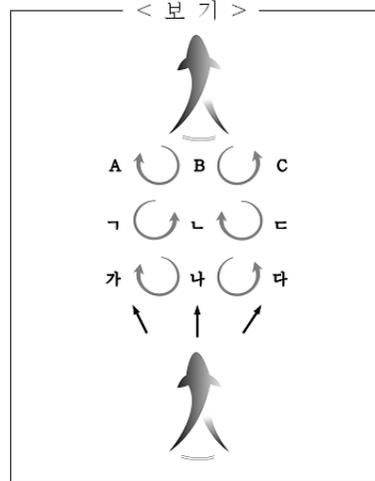
물고기가 좌우로 꼬리를 흔들며 헤엄쳐 나갈 때 뒤쪽으로 소용돌이가 생긴다. 소용돌이 바로 뒤에는 처음 발생한 소용돌이와는 반대 방향의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 뒤로는 또다시 반대 방향의 소용돌이가 순차적으로 생긴다. 이때 물고기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는 소용돌이 사이를 좌우로 헤엄치면서 이동하는 것이다. 소용돌이는 동그랗게 달리면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인데, 물고기는 이 역류되는 소용돌이가 밀어주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나아갈 수 있다. 기러기가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Λ'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도 바로 이 유체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무리 지어 다니는 물고기의 습성은 포식자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리 중 포식자를 먼저 발견한 물고기가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도망을 치면, 그 때의 물의 파장이 옆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순식간에 전해져 무리 전체가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물고기가 무리 지어 다니면 포식자는 작은 물고기 떼를 큰 물고기로 착각하기도 한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움직임으로써 포식자로 하여금 착시현상을 일으켜 쉽게 표적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먹이를 찾고 짝을 찾는 데에도 무리를 짓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물고기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포식자로부터의 방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을 얻고 있다.

4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물고기가 무리를 짓는 이유
- ② 이동에 유리한 물고기의 체형
- ③ 물고기의 생존에 유리한 생태 환경
- ④ 물고기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방법
- ⑤ 물고기가 무리를 이룰 때 동원되는 감각

49. [A]의 내용을 참고할 때, 다음 그림에서 물고기가 나아갈 방향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가 → 나 → A
- ② 나 → 가 → B
- ③ 나 → 다 → C
- ④ 다 → 나 → B
- ⑤ 다 → 나 → C

50.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열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의 흐름이나 주변 사물을 감지한다.
- ② 포식자를 위협하여 쫓아낸다.
- ③ 멀리 있는 먹이를 유인한다.
- ④ 주변의 명암을 구분한다.
- ⑤ 짝짓기 상대를 유혹한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